

김교수 사유(思惟)의 향기



김 교 수 본지 대표이사

올해 경남은 재난의 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봄에는 산청과 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여름 장마철에는 산청과 합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의 그림자가 드리운 현장마다, 한 가지 변함없는 모습이 있었다. 바로 노란 조끼를 입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었다.

그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 불길에 채 잡히기도 전에,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봉사원들은 이미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임시 급식소를 설치하고 구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봉사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연기와 매캐한 냄새, 무너진 집터, 그리고

절망에 잠긴 이웃들. 그 한가운데서 노란 조끼가 한 줄기 빛처럼 움직였다.

올해 산청·하동 산불 때도 그랬다. 봉사원들은 화마가 휩쓸 마을에서 하루 세 끼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재난 현장은 전기와 가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발생한 산청·합천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다. 폭염 속에서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헤치며 구호품을 나르고, 흙탕물에 젖은 이불과 가재도구를 씻어 나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헌신 그 자체였다.

특히, 올해의 봉사 현장은 유난히 더

힘겨웠다. 재난 직후 이어진 폭염은 봉사원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켰다. 30도를 훌쩍 넘는 피약벌 아래, 이마의 땀방울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마스크 안쪽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길은 끊임없이 피해 주민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식사 한 끼에 담긴 온기가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대부분 생업과 가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온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는 신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이야말로, 재난으로 무너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튼튼한 초석일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재난 복구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일은 언제나 이들 같은 봉사자들의 몫이었다. 제도와 행정이 닿지 못하는 그 틈새를, 노란 조끼의 봉사원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메웠다. 남을 위한 배려, 보이지 않는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울림은 수치화할 수 없지만 공동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제 재난 현장의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러나 그날의 무더위와 봉사원들의 숨 가쁜 발걸음은 오래 기억돼야 한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며, 공동체를 치명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노란 조끼를 입고 재난의 최전선에 선 그들의 헌신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는 것을.

경남의 산불과 수해 현장을 밝힌 그 빛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오늘, 조용히 그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LH E&S “상호존중 갑질근절 GO~ STOP”



지난 12월 LH E&S 고위직 및 관리자들이 ‘상호존중 갑질근절 GO~ STOP’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회사인 LH E&S는 지난 12일 고위직과 관리자가 주도하는 ‘상호존중 갑질근절 GO~ STOP!’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시행한

‘갑질발생위험 및 직장문화 자가진단’의 환류 활동으로, 직원 응답을 반영해 발생가능한 직장 내 갑질 예방 강화와 수평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LH E&S 감사실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GO) 5가지, 멈춰야 할(STOP) 5가지의 구체적 행동수칙을 지정했다.

주요 수칙으로는 ▲인정과 배려의 말은 아깝없이 GO ▲더 많이 경

청하고 적극 소통 GO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한 질책 STOP ▲외모·옷·출신지·나이 관련 지적 STOP 이었다.

LH E&S는 이달부터 매일 11일 고위직·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GO~ STOP! 행동수칙’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메일 배너를 전 직원에게 상시 발송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LH E&S 감사실장은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합리한 갑질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E&S는 반부패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감사실을 확대 개편했으며, 사전 예방적 감사와 직원 복무 기강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윤리경영 성과가 2023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우수)을 받았다. /권병호기자



산청종합건설협,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지원 동참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산청종합건설협의회에서 산청군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7월 경남도 곳곳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경남 적십자사를 통해 재해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김소현기자



함안 칠북면 “한 그릇의 정성으로 여름을 이깁니다”

함안군 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00가구에 정성이 담긴 보양식 추어탕을 전달하는 ‘한 그릇의 정성, 여름을 이기다’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협력해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까지 진행했다. /배성호기자



창녕소방서, 화재 대비 치매전담요양원 점검 지도

창녕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13일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창녕군 치매전담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와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여름철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자위소방대 운영 실태 파악 ▲자율점검 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서정필기자



합천군 자원봉사협의회, 취약계층 안부키트 지원

합천군 자원봉사협의회는 13일 합천군민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취약계층 340여 명을 위한 ‘안부키트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안부키트는 각 읍면 자원봉사협의회장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준만기자



농협은행 거제시지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후원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지난 12일 거제시 청 시장실에서 ‘제12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거제시장애인체육회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경화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장은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점수 거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성금은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운영과 선수단 육성 후원에 잘 사용하겠다”며 “후원에 주신 NH농협 거제시지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재성기자



창원시 진해구, 호우 대비 재해복구 현장 점검

창원시 진해구는 12일 정형섭 진해구청장이 지속되는 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재해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장전천 재해복구 현장을 찾아, 올해 상반기에 복구가 마무리된 이후 최근 지속된 호우로 추

가 피해나 이상이 발생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또한 착공 준비가 한창인 신이천 재해복구 현장을 찾아 공사 준비 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기 종료 후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성기자

www.gnynews.co.kr		일간 경남연합일보		2006년 4월 5일 창간 등록번호 경남 가00012 등록일자 2008.02.14	
일반일간신문	발행·편집인	김교수	편집국장	노종욱	인쇄인 조규국
우 51436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27, 8층		대표전화 055-294-7800		팩 스 055-256-9933	
도로명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7, 8층(한성빌딩)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1부 700원

경남연합일보 구독신청 안내

지 사·지 국	연 락 처	사천 지국	010-3560-1876
경 남 지 사	055-276-4198	삼천포 지국	010-2567-5558
신마산 지국	010-9730-0224	합안 지국	010-3747-2344
회원 지국	010-4935-6325	밀양 지국	010-2371-6390
진해·장유 지국	010-7147-6105	하동 지국	010-6677-5005
김해 주촌 지국	010-3584-1415	남해 지국	010-5670-0886
김해 지국	010-2694-7792	합양 지국	010-3036-3105
양산 지국	010-2085-0626	합천 지국	010-4763-1806
진주 지국	010-7104-6515	거창 지국	010-3550-2228
고성 지국	010-5147-0402	창녕 지국	055-533-1574
거제 지국	010-2080-5163	의령 지국	010-2834-1690
산청 지국	010-8843-6963	통영 지국	010-8509-6470